

# “녹기만 기다릴뿐... 한숨만 나오네요”

### 팽생이모자반 바다속으로... 2차 피해 유발 문어잡이 어민 “통발 끌어올리니 모자반 가득” 제주 인근 조업 포기하고 추자도行 어선 많아

“바닷속에 가라앉은 팽생이모자반이 통발에 걸려 올라오면서 문어조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없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녹기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수온이 상승하며 유입량이 정점을 찍었던 팽생이모자반이 해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앞 해상에서 어선을 끌고 문어잡이에 나섰던 A씨는 화들짝 놀랐다.

문어를 잡기 위해 바닷속에 풀어 놓은 통발을 끌어올리자 문어 대신 팽생이모자반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날 A씨는 세화리 앞 1.5km 인근 해상에서 12t급(제주 선적) 문어통발어선을 끌고 나가 하루종일 조업을 벌인 결과 단 한 마리의 문어도 건져 올리지 못했다.

A씨는 “최근 3일간 문어잡이에 나섰는데 모두 허탕을 쳤다”면서 “7월 까지 문어잡이 피크 기간인데 바닷속에서 걸려 올라오는 팽생이모자반 때문에 조업에 나서지 못해 큰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문어조업은 문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빠르게 통발을 끌어올려야 하는 게 관건인데 상당한 양의 팽생이모자반이 통발에 걸려 올라오다 보니 작업 시간이 늦어지고, 그

사이 문어가 통발에서 모두 빠져나가 버리고 있다”면서 “또 통발에 걸린 팽생이모자반을 해체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대책도 없고 팽생이모자반이 바닷속에서 녹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포기하고 추자도 등의 해역으로 나가 조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제주로 유입된 팽생이모자반은 해상과 해안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고 있다.

한림지역 어촌계 등은 해안에 쌓인 막대한 양의 팽생이모자반을 수거하기 위해 생계수단인 어업을 포기한 채 연일 수거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제주시 조천포구 앞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A호(3.28t)가 팽생이모자반을 피해 항해하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두달간 5000여t의 팽생이모자반을 수거했으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6월 말까지 팽생이모자반 수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최근 여름으로 접어들며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팽생이모자반이 자연적으로 녹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인근 해상에서 문어잡이에 나서 통발 수거작업을 벌이던 어선에서 팽생이모자반이 끌어 올려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 노동계, 급식 노동자 절단사고 ‘발끈’ 민노총 어제 성명 “교육청 예방대책 마련하라”

속보=제주도내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기’에 의한 손가락 절단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본보 10일자 4면·11일자 5면)하면서 노동계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 현장의 중대 재해를 이제 멈춰야 한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즉각 개최해 재해 예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른쪽 손가락 1개가 절단되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뼈가 으스러지는 중상, 오른쪽 검지 절단 봉합 실패, 오른쪽 중지·약지 골절 장애 발생... 이는 어느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면서 “바로 학교 급식 현장에

서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급한 사고들은 학교에 보급된 음식물 감량기 작동 과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중대 재해로, 하루 7명이 출근했다가 산재 사망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대한민국 중대 재해의 민낯이 재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지만 당국에서는 급식 노동자의 주의를 부족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 번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4번이나 발생한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청 역시 조례를 이유로 감량기 도입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 서귀포시민단체 “서귀포시장 지명 철회하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서귀포시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서귀포시민연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김태엽 후보자의 서귀포시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은 올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와 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제주도는 음주운전에 대해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적발 시 공무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의 원칙을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김태엽 전 부시장을 서귀포시 시장으로 지명 강행했다. 민심과 거리가 너무 먼 부적합한 인사 지명 강행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런 지명이 강행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의 문제라며, 행정시장 직선제나 주민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대안을 토대로 시민 사회단체를 포함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영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첫 부착 30대 여성 확진자의 70대 부친... 집 근처 편의점 들러 물건 구입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겨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보건소는 지난 8일 자가 격리 지침 위반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귀포시 거주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에 의하면 A씨는 도내 1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B(34·여)씨의 아버지다. B씨는 지난 5월 29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제주에 사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같은 날 제주에 입도했다. B씨는 이틀날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버지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잠복 기간을 고려해 이날부터 자택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A씨의 자가 격리 기간은 13일까지이다.

A씨는 자가 격리 8일째인 지난 7일 자택을 이탈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54분쯤 자택에서 나와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구입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탐미를 잡혔다.

보건당국은 A씨 손목에 안심밴드를 채웠다. 안심밴드는 손목에 차는 전자 팔찌 형식으로,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돼 있다. 20m 이상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안심밴

드는 자가격리 위반 시 착용하게 되며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안심밴드 부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4일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제주에서 안심밴드 부착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자가 격리 위반자는 4월 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제주에서는 자가 격리 위반으로 8명이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동료 살해 중국인 징역 12년

흥기를 휘둘러 같은 동포 동료를 살해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

(미등록외국인) A(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50분쯤 서귀포시에 한 주택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중국인 동료 B(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 양식장 컨테이너 화재

11일 오전 11시7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한 양식장 내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양식장 내 산소발생기 설비가 들어 있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며, 컨테이너와 산소발생기 장비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57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심의번호 2007-GN1-26-0155

##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대표 **임창완**

###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그랜드보청기

가정의달 보청기 파격 대할인

### 보청기 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샵출들 훈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수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

제주시 서귀포시 전지역 방문 관리 서비스

보청기 모든 제품 보상판매 서비스

※ 세계금연기념 청각장애 및 흡연자 이신분들  
금연카드 무료로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금연파이프, 사탕, 가리, 구취제거제, 은단, 비타민C)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 064-725-9275

서사리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 감골요목

###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 4년생  
성전온주 ..... 4년생  
황금향 ..... 4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 한림종묘

010-3690-2453

## 감골 신상품 분양

###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향, 탐나는동, 사리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번이 (2년생 이상 100% 아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